

“체계적 교육으로 영산재 맥 이어갈 것”



데스크 초대석
육천범음대 학장 임운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사학인 육천범음대학(玉泉梵音大學)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점은행제 대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육천범음대는 교육 과정과 각종 시스템을 개편 하는 등 전통 불교의식법을 전수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주하다. 학장 임운스님은 “전통적인 의식의 맥을 제대로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며 “육천범음대는 영산재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튼튼한 교육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불자들에게 육천범음대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불교의 전통 의식을 전수시키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산재라고 알려진 불교 의식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배우고 시연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예불이라 할지라도 절차와 법도에 맞게 진행해야 하듯 특별한 발원과 의미를 갖는 각종 ‘재(齋)’를 연습하는 경우에는 전해 내려온 법식을 제대로 배워서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산재가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고요. 우리 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운영합니다. 영산재보존회 회원들이 영산재 기능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들이 강사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님도 직접 학생들 앞에 설 계획입니다. 전승회 진입 회장인 인공스님과 현재 회장인 환우스님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실습 위주의 학습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보화 작업은 불가능한지요?

“범패는 구전(口傳) 전승이다보니,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에서 완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보 작업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보화 한다고 해서 소리가 제대로 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득음을 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의식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기를 갖추는데 적어도 3년은 필요합니다. 득음의 경지라면 10여년을 연마해야 하는데 요즘은 너무 간단하게 배우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

아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에서 범패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산재가 갖는 문화적 가치는 종교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 대학 당국에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재 준비유자이신데, 스님에게 있어 영산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영산재는 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봉원사에서 소리를 배우고 동작을 배웠고 지금까지도 배우는 자세로 의식 시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행이라고 했는데 나는 승려로서 영산재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엔 사스님에게 ‘출가자는 부처님을 등 뒤에 놓고 살라’는 부류가 있고 성불의 원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서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

-학교 이름에도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육천(玉泉)은 육천사란 절 이름에서 따 온 것입니다. 육천사는 신라말 진감국사께서 중국에서 범패를 배워 오신 뒤 지리산에 지은 절(지금의 쌍계사) 이름입니다. 1969년 설립된 ‘육천범음회’는 근세 최고의 어장이셨던 이월하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모임입니다. 안덕암 김운과 장벽을 박송암 스님 등이 주축이 되어 불교 의식의 전통을 잇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1973년 박송암 스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 보유자로 선정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불교 전통 의식의 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1993년 이전까지 1000여명이 육천범음회에서 범패를 배웠습니다. 종단을 초월해 누구나 뜻이 있으면 불교의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3년제 대학으로 설립해 지금까지 200여명이 정식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최근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이 되었는데,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년제 대학입니다. 의식을 다룬다 보니 실습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이론과목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맞춰 학과목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범패실습Ⅱ 영산재의 레절차와 작법실습 사물실습 범패전승계보 영산재구비전승학습 등 6개 강좌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산재 기능 보유자인 구해 스

“영산재는 끝없는 자기 연마 과정...시연이 곧 수행” 세계 문화유산 등재 위해 내년 프랑스서 공연 예정

안타깝습니다. 전통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엮거나 작법 등을 시연하는 것은 불보살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의식을 배운 공덕주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영산재 의식도 시연자 입장에서는 수행일 것 같습니다.

“정신이 산만하면 어떤 의식도 이끌 수 없어요. 마음에 정성이 가득해야 하고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추고 각 의례 마다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의식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시연자의 내면이 먼저 엄숙하고 장엄해야 드러나는 형식이 장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산재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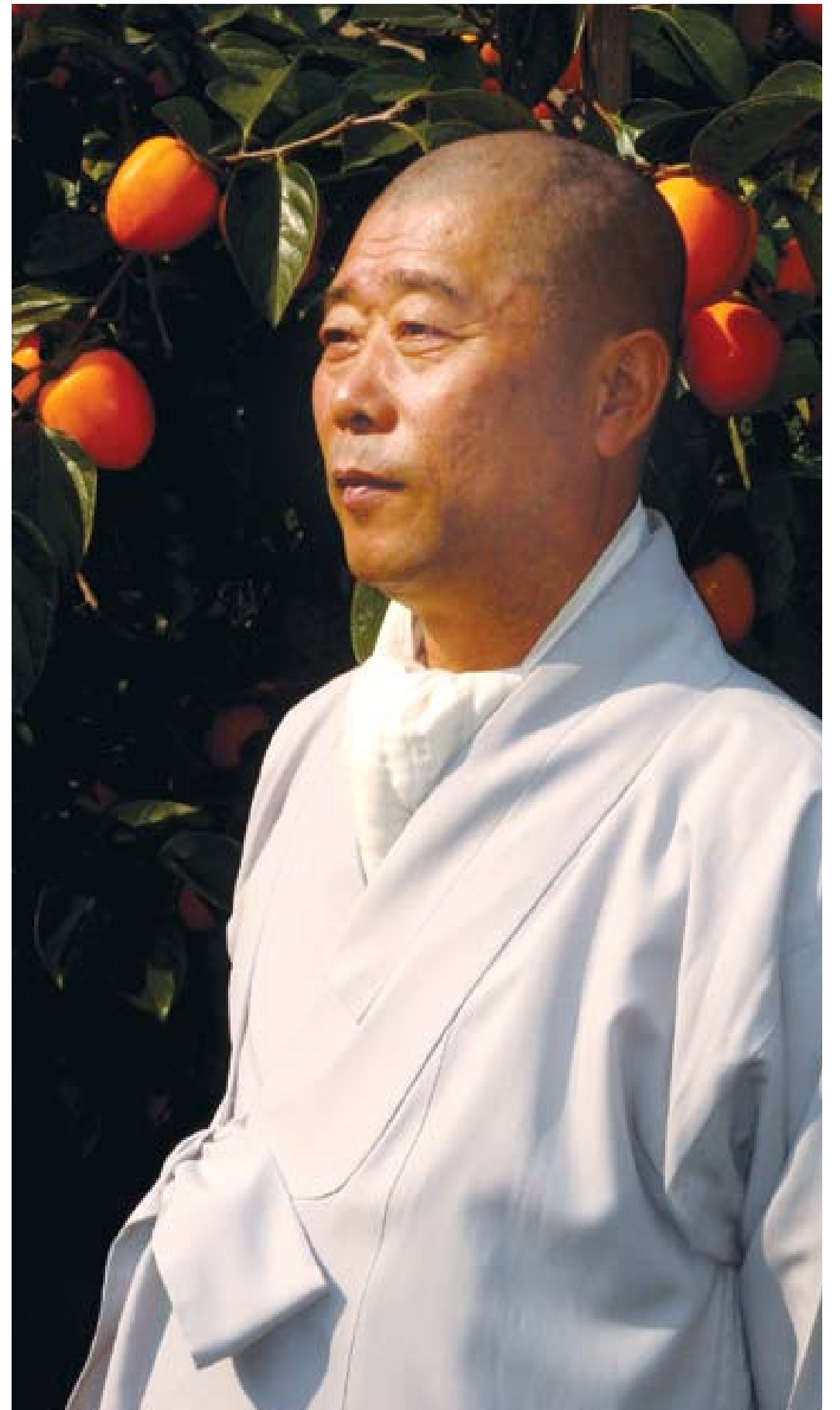
“육천범음대 외에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한국음악과와 명신대학 전통공연예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전통음악관련 학과에서 범패 강좌를 열어주는 경우가 좀 더 늘어

이 되는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특히 의식을 시연하는 스님들이 ‘둔발이 수단’으로 재에 팔려 다니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영산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스님들이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이지요. 정말 간절히 신심과 원력으로 의식을 지키고 전승해 주신 선대 스님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육천범음대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산재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영산재 공연을 갖습니다. 유네스코가 영산재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조금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네스코의 관련 심사위원이 봉원사에서 영산재 과정을 정밀하게 관람하고 갔고 매우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 영산재는 반드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임연태 기자



www.sungjongsas.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이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감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필기 박사(대동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좌위치와 심체 당좌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좌 가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세로 발달되어가고 있는 저의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사관: 서울서 종로구 전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부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장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